



설 연휴 뒷마무리 청소

광주시 북구청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원들이 12일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2배 늘어

광주·전남 269곳 적발

광주·전남 지역에서 설을 앞두고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가 지난해의 2배 이상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지원(이하 전남 농관원)에 따르면 지
난 1월 9일부터 2월8일까지 특별사법
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여명의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69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설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체, 백화점, 할인매장, 전통시장, 인터
넷쇼핑 등 모두 5300곳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표
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엔 적발된 269

곳 가운데 다른 지역산 마른 표고버
섯을 지역특산품인 '장흥산'으로 둔
갑시켜 판매한 C조합법인 운영자 I
(39)씨 등 107곳의 대표를 형사입건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2곳
과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곳에
모두 24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
간의 137곳(거짓표시 38, 미표시 99)
보다 96.4%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위반 업소가 증가한 것은
국내산 생표고버섯 등 제수용품의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유통량이 늘
어났고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 대
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종 피싱 ‘파밍’ 당신 통장 노린다

악성코드 감염 은행과 유사 사이트 연결 백신 프로그램도 못 걸러 피해 속출

30대 주부 유모씨는 지난 11월
자녀 학원비를 이체시키기 위해 평소
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단골 거
래은행을 검색했다. 사이트에 접속하
자 ‘개인정보 보호, 보안등급 강화’를
이유로 35개 보안코드 전체와 비밀번호
호를 입력하라는 안내창이 떴다.
예전부터 인터넷 뱅킹을 자주 이용
해 온 유씨는 사이트 주소와 홈페이
지를 한번 더 확인한 후 정보를 입력
했다. 하지만 보름 후, 통장정리를 하
던 유씨는 5회에 걸쳐 1763만원이 타
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점심을 일
찍 먹고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즐거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은행 사이
트에 접속했다. 김씨는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
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

력했다. 며칠 뒤 계좌에서 1000여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피밍’ 확산=온라인 금융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
데, 신종 피싱(phishing·금융기만 등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
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행각) 수법
인 ‘파밍(pharming)’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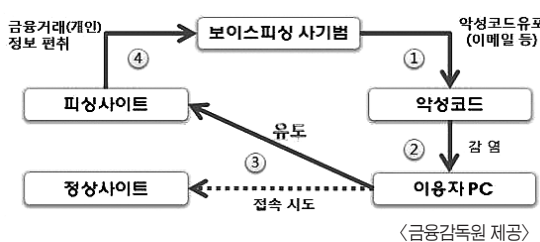
파밍은 전화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
는 보이스피싱, 문자나 SMS, 이메일
에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를 지닌 가짜 사이트 주소를 넣
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smish
ing)에서 한단계 진화된 것이다.

범죄자들은 공유 사이트의 파일 다
운로드 경로와 한글, PDF 파일의 취
약 부분에 악성코드를 넣는 ‘제로데
이 공격’을 통해 피해자의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다. 그러면 직접 주

소창에 은행 사이
트 주소를 입력하
거나 즐겨찾기나
포털 검색을 통해
접속해도 미리 만
들어 놓은 가짜 사
이트로 연결된다.

가짜 사이트는 기존의 사이트와 디
자인과 주소가 같은 데다, 최근 발생
한 사건은 고객정보를 입력한 후 진
짜 홈페이지 화면으로 연결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져 돈이 인
출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악성코드 자체
가 업데이트를 차단해 백신 프로그램
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
12월 두 달간 전국에서 146건의 파밍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9억
6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금융결제원은 파밍사이트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 461개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
하고 해당 인증서를 일괄 폐기하기도
했다.



◇세심한 주의가 우선=PC 자체에
가짜 IP를 심는 탓에 예방대책은 현
제로서는 없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보안카드
의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길 요구한
다면 100퍼센트 파밍”이라며 “정상
적으로 들어간 사이트의 로그인과 공
인인증서 부분에 마우스를 놓았을 때
뜨는 링크 주소가 해당 사이트가 아
니면 파밍 사이트일 확률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단 악성코드에 감염이 확인됐다
면, 공인인증서를 파기하고 비밀번호
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
성코드는 일반 백신으로 치료가 어려
우니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나 백
신 업체에 문의를 해야 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어린이 ‘사전등록제’ 아시나요

작년 7월 시행... 지문·사진 등록 실종매 활용

홍보·인력 부족 광주 20%·전남 10%로 저조

14세 미만 어린이의 지문·사진 등
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시 활
용하는 ‘사전등록’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다. ‘내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데다, 홍보 및 인력
부족,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등도 복
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1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
면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
문·사진 사전등록 서비스가 실시된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지문 등을 등록한 아동은 광주 4만
5743명, 전남 2만5626명 등 모두 7만
13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등록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했
다가 실종 사건 발생시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
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광주의 14세 미만 아동이
전체 22만9750명인 것을 감안하면 등
록률은 1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
남 지역도 대상 아동(24만6139명)의

10.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상
황도 비슷해 국내 사전등록 대상자
(759만명)의 9.7%인 74만6118명이
지문·사진 등을 등록한 것으로 경찰
청은 파악하고 있다.

그나마 전남과 달리, 광주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등
록을 돕는 경찰청의 6대 특별·광역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를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서비스 시
범 지역에 포함돼 참여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3~7세)이 아닌, 초등학교의 경우
경우 굳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
들이 적지 않다는 점, 제도 자체에 대
한 정보·홍보 부족 등도 참여율 저조
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부
터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어떠한 제도
인지,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실
정이다.

인력 부족도 한몫을 했다. 전남의

경우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다른 업
무를 병행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등록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형
편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점을 고려
해 오는 3월 말까지 현장방문 서비스
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향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
안도 고려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과 정

■연도별 실종아동 등 발생현황

연도	총계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
'08년	18,595	9,485	4,864	4,246
'09년	20,480	9,257	5,564	5,659
'10년	24,137	10,872	6,699	6,566
'11년	26,409	11,425	7,377	7,607
'12년	25,533	10,655	7,228	7,650

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건수(2만5533건)가 전년(2만
6409건)에 비해 3.3%(876건) 감소한
데는 사전 등록 서비스의 효과가 컸
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남대 설립자 보석 동의 못해”

교수협 기자회견

남원 서남대교수협의회는 12일 교
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인 이모(74)씨 등의 보석 석방
〈광주일보 12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법원의 보석 사유는 공색한 변명”이
라고 주장했다.

서남대교수협의회는 이날 광주지
법 순천지원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식을 지닌 사람들은 이
씨의 법원 보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립자의 전횡에 대항 한번
못한 교수들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했다.

교수협의회는 회견에 앞서 순천지
원장을 항의 방문하려다 지원 민원실
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돌아갔다.
순천지원은 지난 7월 이씨가 건강악
화로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
을 허가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
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
억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니원침



40대 KTX에 치여 숨져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웨딩홀 앞 철로에서 김모
(41)씨가 달리는 KTX에 치여 숨졌
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2m 높이
의 안전 펜스를 넘어 순천역을 출발
해 서울 용산역으로 가던 KTX 열차
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일에
도 사고 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철로에서 있다가 코레일 관계자들에
게 발견된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친근감 표시한다며 10대 성기 만져

○~10대 환자와
대화를 나누다 친
근감을 표시한다
며 성기를 만지작거리 50대 병원 경
비원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병
원에서 입원 중인 박모(19)군의 성기
를 만진 경비원 김모(55)씨를 강제추
행 혐의로 입건.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군의
외모를 칭찬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려
고 몸을 만지다가 손이 내려가 성기
까지 더듬게 됐는데 “상대가 불쾌해
할지 몰랐다”며 후회.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월 15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원서접수처: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2011년 기준)의
물품권 교수권이 준바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학 력을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